진안군의원 대형 관정 3기 보유 의혹

〈정옥주〉

인근 농민 "물 사용 못해" 불만 팽배

"정옥주 진안군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대형관정 3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인근 농민들은 자치단체에 지원을 받지 못해 사비를 들여 관정을 설치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7일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출신 정옥주 진안군의원은 사방 300여m 이내에 대형관정 3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근 농민들이 물이 필요해 관정 사용을 요구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구룡리 844~2번지 축사 옆 100m 이내에 2기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3년 전(2016년) 자치단체의 지원금 5000여만원으로 1기를 더 설치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으나 주위 농민들에게는 인색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 의원 축사 주변에서 수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박영대씨는 "그동안 물이 필요해 관정 사용을 정 의원 측에 부탁했다. 거절당하고 농지 옆에 사비로 관정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소에 이상이 온다"며, "관정 설치를 못하게 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정옥주 의원은 "박영대씨가 관정 사용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것은 혹시라도 농작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소독약이 관정에 유입돼 소에게 이상이 있을까봐 사용을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지역민들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기는 커녕 군민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익추구에만 열중하는 모습에 군민들은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전북도 주관 '2년 연속'

전주시가 2년 연속 전북도에서 주관한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전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전라북도 지방세연찬회'에서 201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방세정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및 납세자 편의시책 등 세수 증대 노력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 15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해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면서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세정업무를 추진해온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세정 실천을 위해 △재능기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DAY 운영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 운영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 등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상습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년 대비 579억원이 증가한 6829억원을 징수했다. /송효철 기자

"땅콩을 심어볼까" 지난 17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 재배지에서 완주군 이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땅콩심기 농사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익산서 빈집털이 50대 붙잡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3시 42분경 익산시내 모 아파트에 침입해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우다'

전주 야호학교 학교연계 특화 프로젝트 발표회

전주시는 지난 17일 중앙중학교 강당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 160여명과 야미(야호학교 알리미)단, 야호학교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연계 특화 프로젝트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야호학교는 전주시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안정진 TBN전북교통방송 진행자의 사회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 청소년들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했다.

발표회는 특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총 24개 팀 중 반별 예선 발표회를 거쳐 최종 선발된 6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회장과 학교장,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최종 완성도와 발표력 등을 심사하고 참여자 전원의 현장투표 등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특히, 청소년들은 기존의 수동적 체험학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테마식 체험학습으로 청소년 중심의 자치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운영한 결과물을 팀별 자체 제작 영상물을 통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업을 통해 전주형 창의교육의 패러다임을 제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중앙중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 하반기에 연계 진행될 수학여행 프로젝트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큰 꿈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야호학교 2019년 1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주지역 중·고교 관계자와의 방문 면담을 통해 특화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324, 531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 뷰티기업, 세계 최대 시장진출 '노크'

시, 중국 상해 미용박람회서 전주시관 운영 6개사 참여

화장품과 미용제품을 생산하는 전주시 우수 뷰티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 상해신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제24회 중국 상해 미용 박람회'에 전주시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중국 상해 미용 박람회(CBE)는 지난해 40개 국가의 3,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세계 최대의 전문 미용전시회로, 전주지역 6개 업체가 참가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문을 두드리게 된다.

시는 참여기업에 박람회 참가비용(90%)과 통역비, 편도 항공료, 전시품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참가 업체들은 전주시의 지원을 토대로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욕구 파악 등 해외시장분석을 통한 수출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3년 전(2000만원)보다 20배 늘어난 6억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예산을 편성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회만 추진된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는 이번 상해 미용 박람회를 시작으로 △방콕 한류박람회(6월)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10월) △인도 국제무역전시회(11월)를 포함한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박람회 참가가 기업 제품 홍보와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 조사 등에 유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강병구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전주시 뷰티산업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우수상품의 수출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장애인 자립·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응원하고자 전주시가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도시혁신센터에서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열고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에 따르면, 김 부시장은 참여자들이 직무수행 중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등 진솔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등 다양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참여자와 배치기관 담당자, 배치기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및 구직역량강화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독립과 행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오늘 나온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효철 기자

고품질 전주 배, 베트남 수출 100배 ↑

지난 2016년 1만9000달러에서 작년 188만달러로

시, 올해 300만불 달성 목표로 수출전략 육성 추진

전주에서 생산된 고품질 배의 베트남 수출규모가 2년 새 10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만9060달러에 불과했던 전주 배의 베트남 수출액이 지난해에는 188만4519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시는 우수농산물 신흥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한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을 겨냥해 배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동남아 현지에서 해외판촉행사를 진행하는 등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시는 올해 자부담을 포함한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연간 농업 수출 300만불 달성을 목표로 우수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베트남 현지에서 전주 우수농산물인 배를 소개하는 해외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등 전주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이후 현지바이어 발굴 등 다방면의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 수출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올해 신규 농산물수출시장으로 캄보디아 등지에 복숭아를 약 10만달러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해외판로 개척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주 농산물인 배·복숭아·양파 3개 품목의 수출액은 약 710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비들의 풍류 속으로

전주전통술박물관, 절기주·주안상 한마당 한옥마을 주민·여행객에게 볼거리 등 제공

한옥마을 절기축제 일환

전주시와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지난 17일 전주한옥마을 은행로 오목정 일원 실개천에서 옛 선비들이 즐기던 흥겨운 풍류를 재현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한옥마을에서 과거 선비들이 여름철 실개천에서 술을 벗 삼아 즐기던 풍류를 경험할 수 있는 절기축제가 펼쳐졌다.

전주시와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지난 17일 전주한옥마을 은행로 오목정 일원 실개천에서 옛 선비들이 즐기던 흥겨운 풍류를 재현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마당 행사는 입하(立夏, 5월 6일)를 맞아 '한옥마을의 한벽청연 유상곡수연으로 놀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유상곡수연'이란 옛 선비들이 흐르는 물위에 술잔을 띄어놓고 술잔이 떠내려가는 동안 시 한수를 읊거나 소리 한 자락 또는 가야금 등 사군자놀이를 하는 연회 문화로, 이날 전주한옥마을 주민과 여행객 등은 한복을 차려 입고 옛 선비들이 절기를 즐기던 풍류문화를 재현했다.

또한, 사전행사로 한옥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교동풍물패와 전문풍물패인 '소리樂' 등이 연합한 길놀이 행사도 펼쳐졌으며 최명희문학관·전주소리문화관·전주부채문화관·완판본문화관·전주한벽문화관·전통문화연수원의 6개 문화시설의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홍보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식후행사로는 전주전통술박물관에서 '입하 절기주, 한국의 묵을 만나다'를 주제로 전통술박물관에서 절기주와 주안상 여흥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사라진 우리 술 호산춘과 과하주, 청명주, 향온주 등 다양한 절기주에 전주비빔밥의 꽃으로 불리는 황포묵 등을 곁들인 주안상을 맛봤다.

이밖에도, 황녹두 살리기(황녹두 씨앗 나눔) 행사도 진행됐으며 전주한옥마을 주민과 시민, 여행객 등이 소리꾼과 찬주가와 권주가를 함께 부르며 흥을 돋궜다.

이번 축제에 이어 오는 6월에는 하지(夏至, 6월 22일)를 맞아 29일 전주부채문화관에서 '여름의 초입 하지에 바람을 일으켜 시원한 휴식을 안겨주자'를 주제로 △길놀이 △전통문화체험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김동식 초대전·특강 △전주부채와 함께하는 성악공연 △전주부채 사진공모전 전시 △전주를 보다2 부채 제작 및 지역민 나눔행사 △주민 먹거리나눔 등으로 채워지는 '전주부채, 여름아, 꼼짝 마!'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 절기축제는 한옥마을 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과 여행객, 문화시설 등이 함께 한옥마을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의 장"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현금인출기 투입구 현금 절도하다

현금인출기 투입구에서 현금을 훔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경 익산시내 모 은행 현금인출기 투입구에서 B모(43)씨가 두고 간 현금 5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신용카드 훔친 70대 검거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A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경 김제시내 한 매장에서 B모(65)씨 핸드폰 케이스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김제시내 모 마트에서 식자재 등 9회에 걸쳐 총 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강석훈 기자